

濟州島 俗談의 表現

高 在 奐

< 目 次 >

- I. 序
- II. 表 現
 - 1) 修辭
 - 2) 律格
 - 3) 滑稽
- III. 結

I. 序

記錄文學이 그렇듯이 俗談 역시 선인들의 생활상을 반영시킨 口承文藝로서 弄中有意的 째째한 비평이 있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寸鐵殺人의 概가 담겨져 있다. 그만큼 俗談은 通俗性이 강한 자극적 話素가 되고 있다는 데서 그 표현의 妙가 惝惚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俗談의 妙諦는 그 표현법의 묘미에 의해서 眞價與否가 판가름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들 표현법을 형태구성에 예속시켜 形態構成素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형태구성소와는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처리할 것인가, 論者에 따라 觀點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표현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 곧 類型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표현을 형태구성의 脈絡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형태는 俗談의 의미기능적 구조에 입각한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야 한다고 보았을 때 표현법은 技法과도 결부되고 있으므로 형태구성소와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형태는 어디까지나 俗談의 典型性을 찾으려는 꼴(型)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표현법은 俗談을 표출하는 手法이므로 형태와 표현은 각각 獨自性的의 것으로 분리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1) 李殷相, '俚諺의 意義와 및 그 形式에 關하여' 「東光」 10호, 1927.
pp. 126~238에서 음수율을 의형태의 구성소로 다루고 있다.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pp. 20~21에서 시가형으로서의 음수율을 형태구성의 일부로 다뤘다.
沈在箕,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冠嶽語文研究」 第七輯, 1982.
pp. 223~225에서 울거울 외형구조상의 형태소로 취급했다.
金善豐, '俗談' 「韓國民俗大觀 6」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pp. 563~577에서 울거울 외형태, 수사법을 수사태로 하는 형태구성소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550편의 濟州島俗談(이하 本島俗談)을 자료로 분석검토해 본 결과 <修辭><律格><滑稽>등이 그 표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II. 表 現

1. 修 辭

修辭라 함은 말이나 문장을 수식하여 보다 묘하고 아름답게 하는 기술이므로 적절한 修辭法의 활용은 말이나 문장표현의 멋과 내용을 돋보이게 한다. 원래 俗談은 문자에 의한 文章化가 전제된 기록위주의 것이 아니다.²⁾ 言衆 속에서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는 話用論의 口演이 그 본연이다. 그것이 점차 언어생활의 재치와 口辯에 활력을 더하는 變因으로 작용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修辭의 技法의 妙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文의 균형과 整齊를 위한 조화와, 추상이 아닌 명료한 인상을 위한 具象化를 통해서 내용의 풍부와 상상의 여백을 제공하는 譬喩·強調·變化 등 다양한 기법의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다.

俗談의 대부분이 짧은 文型에 해당하지만, 수사적 기교가 잘 구사되고 있어 俗談을 일컬어 ‘날개 달린 말’ ‘주인 없는 화폐’ ‘한약방에 감초’라고 할 정도로 通俗性이 강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韓國俗談學에서 수사법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13개의 修辭態³⁾를 적용시킨 「韓國民俗大觀 6」의 ‘俗談’부분을 꼽을 수가 있다. 여기서 金善豐은 수사법을 俗談의 형태구성소로 보고 형태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형태와 표현을 별개의 분야로 다룰려는 필자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論據는 앞의 序에서 제시한 대로 표현은 技法을 동반하고 있는 수법상의 문제이므로 의미기능상의 유형인 형태와는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分類基準으로는 A) 한 편의 俗談에 한 개의 수사법만을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B) 한 편의 俗談에 두 개 이상의 수사법이 혼용될 때는 그 외형구조에 중점을 두었고 C) 한 편의 俗談에 두 개 이상의 수사법이 혼용되어 있어 어느 것을 적용해서 좋을지 판별이 모호할 때는 俗談의 기능적 효용성을 중시하여 분류했다. 實例를 들면

① 장항광 어린 아인 실여야 죽나.

(장독과 어린 아나는 시려야 좋다.)

② 허벽⁴⁾ 진 이 호이후난, 팽 진 이도 호이후다.

(허벽 진 이 호이하니, 병 진 이도 호이후다.)

2) 李殷相. 前掲書, p. 238.

3) 金善豐. 前掲書, pp. 574~577.

4) 모양이 둥글고 배가 볼록하고 위의 아가리가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

③ 하늘 울엉 날 존 날 시렁, 바람 불엉 절 잘 날 시카.

(하늘 울어서 날씨 좋은 날 있으며, 바람 불어서 물결 잔잔할 날 있으라.)

①의 俗談은 어린 아이의 과잉보호를 경계하는 警句法일 수밖에 없으므로 분류기준 A)에 해당한다. ②의 俗談은 승어 튀면 망둥이도 덩달아 튀는 격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잘난 체하려는 假飾된 소행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후대칭의 對句를 중심으로 飄喻·隱喻까지 共存하고 있으나, 외형적 구조미를 중시하여 對句法으로 보고 분류기준 B)을 적용했다. ③의 俗談인 경우 ②의 속담처럼 대구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與件일 때는 결코 쾌적한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경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나 경구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對句나 隱喻, 警句보다는 의도적으로 의미기능을 강화시킬려고 의문을 설정함으로써 긍정적 반응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분류기준 C)에 의하여 設疑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本島俗談의 수사적 표현은 다음과 같은 10개의 수사법으로 묶을 수가 있었다.

(1) 警句法(155편)

警句法이란 기발한 語句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俗談, 格言같은 것은 대개가 이 경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俗談 거의가 경구일 수 있겠으나 다른 수사적 요소와 기능이 겹쳐져 있지 않은 분류기준 A)에 의해 경구법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선별했더니 550편중 155편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例 示>

- 놈이 첩과 관장살인 꿰던 밥도 두엉 간다.
(남의 첩과 벼슬살이는 꿰던 밥도 두고 간다.)
- 늘그니 목둥인 방구석에 세와 덩 간다.
(늬은이 지팡이는 방구석에 세워 두고 간다.)
- 급할 놈은 배속에서부터 안다.
(급할 놈은 배 속에서부터 안다.)
- 나는 날부터 재우는 건 얘기여.
(낳는 날부터 재우는 것은 얘기다.)
- 홀어멍 훈다니 말라 씨로 안 난다.
(홀어미 야단치지 말라 씨로 안 난다.)

(2) 諷諭法(87편)

諷諭는 슬며시 나무라는 뜻을 덧붙여 타이름이다. 따라서 諷諭法은 사전적인 해석에 의하면 修辭學의 詞態의 하나로서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써 본뜻을 推察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俗談에 있어서 이 풍유적 표현은 인간생활의 모순과 애환 등 迂餘曲折을 미묘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약점을 직접·간접적으로 공격하고 嘲笑하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例 示>

- 어려와 가민 다심어명 궤 꾀는 디 간다.
(궁색해 가면 궤모 궤 파는 데 간다.)
- 멜도 베설 싣나.
(멀치도 베설 있다.)
- 재작부리⁵⁾ 지 가늌 모르멍 쥘레질 혼다.
(재작부리 궤 가늌 못하면서 싸움질 한다.)
- 흥던 광절도 돈 주켄 흥민 안혼다.
(하던 광절도 돈 주겠다면 안한다.)
- 구쟁기 똥누레 가불민 게드레기가 좃이 혼다.
(소라 똥누리 가버리면 집게가 좃이 한다.)

(3) 隱諭法(84편)

隱諭法이란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 아닌, 표면상으로 비유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숨겨진 비유로서 표현하려는 原觀念이 補助觀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특성이다.

俗談에서 이들 은유법은 거의 실생활과 밀착된 具象語가 원관념을 드러내는 보조관념어로 쓰이고 있다.

<例 示>

- 웨바농코 툇 다지기 쉽나.
(외바늘귀 쪼개지기 쉽다.)
- 메역집광 애기짐은 베여도 안 내분다.
(미역집과 애기짐은 무거워도 안 내버린다.)

5) 뿔이 뒤쪽으로 휘어진 소.

- 눈 낭에 우름 안 온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울월 발창 사을 지저우민 누엥 먹나.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어서 먹는다.)
- 쟈 놈 시불 얻어 먹나.
(빠른 놈 세 차례 얻어 먹는다.)

(4) 對照法(71편)

對照法이란 對偶관계로 구성된 것으로서 前節과 後節이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 구조는 對句法과 같지만, 對稱의 雙을 이루고 있는 前·後節의 내용을 보면 서로가 대립관계이므로 구분이 가능해 진다.

실제 俗談에서 그 기능적 역할은 외형구조와는 관계 없이 경구법도 되고 풍유법도 되며 은유법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대조법으로 분류시킨 것은 분류기준 B)에 따라서 그 구조형태가 전·후절이 각기 對比되는 표현법을 썼기 때문이다.

<例 示>

- 도둑놈 텐 벗곡, 자식 텐 못 벗어나.
(도둑놈 티는 벗고, 자식 티는 못 벗는다.)
- 집 치레 말앙, 밧 치레하라.
(집 치레 말고, 밧 치레하라.)
- 좁쌀만이 간세햇당, 담돌만이 움직인다.
(좁쌀만큼 게을렀다가, 돌맹이만큼 움직인다.)
- 각씨 웃인 건 안 섭섭해도, 남통머리 잃은 건 더 섭섭하다.
(아내 없는 것은 안 섭섭해도, 나무담배통 잃은 것은 더 섭섭하다.)
- 놈이 코 쓸젠 말앙, 이녀 코나 쓸라.
(남의 코 닦지 말고, 자기 코나 닦아라.)

(5) 對句法(54편)

對句法은 대조법과 그 외형구조는 같게 보이지만, 전·후절이 대립관계가 아닌 대등절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類似的 同類項이 반복과 나열을 함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技法 때문에 俗談에는 押韻律이 적용되지 않은 데도 압운율을 확대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⁶⁾

6) 金善豐. 前掲書, pp. 564~565에 頭韻, 末韻, 腰韻, 疊韻法을 적용시켰다.
沈在箕. 前掲書, p. 224에 頭韻과 脚韻의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거는 <律格>에서 논의하겠다.

<例 示>

- ㄷ를 썬 눈을 보곡, ㅈ를 썬 뺨을 보라.
(뺨 소는 눈을 보고, ㅈ를 소는 뺨을 보라.)
- 애기야 애기야 흥민, 흥악흥악 흥다.
(애기야 애기야 하면, 흥악흥악 한다.)
- 꺾인 풀 비젠 ㅎ민, 꺾은 풀도 비여진다.
(나쁜 풀 베려고 하면, 좋은 풀도 베어진다.)
- 여잔 오뉴월에 술치곡, 남잔 구시월에 술친다.
(여자는 오뉴월에 살찌고, 남자는 구시월에 살찐다.)
- 둥그린 득새긴 빙애기 되곡, 둥기린 사름은 쓸매 난다.
(굴린 달같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람은 쓸모 있다.)

(6) 誇張法(45편)

誇張法은 사실보다 확대하여 針小棒大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려는 기법이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는 풍자적 요소도 있게 마련이지만 실제 표현은 과장을 통한 의미의 강조현상이므로 諷喻法과 구분하여 분류했다.

<例 示>

- 눈썹에 불붙어도 끝 저를 웃나.
(눈썹에 불붙어도 끝 겨를이 없다.)
- 물똥을 노아도 손맛인다.
(말똥을 놓아도 손맛이다.)
- 애기 어멍 삼스월엔 돌이라도 니 아니 들영 못 먹나.
(애기 어머니 삼사월에는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 호 달에 개역 7 시번 주베기 시번 ㅎ민 집안 망한다.
(한 달에 개역 세 번 수제비 세 번 하면 집안 망한다.)
- 생이 호 머리로 일뻬 잔치흥곡, 사돈침이 정 들어가도 이문이 걸린다.
(새 한 마리로 이레 잔치하고, 사돈집에 지고 들어가도 대문에 걸린다.)

7)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숫가루.

(7) 直喩法(13편)

直喩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의미를 다른 사물이나 의미를 끌어다가 직접 연결시켜 ‘~처럼, ~같이, ~듯, ~양(마냥), ~같다(닮다)’등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 수사법을 사용한 俗談의 선별은 매우 신중을 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비유로 된 語句를 잘못 하다가는 전부 俗談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⁸⁾ 종래의 俗談資料를 수합하여 펴낸 李基文 編 「俗談辭典」(民衆書館, 1962)에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돼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엿불 외듯.’ ‘암팜같다.’ ‘복치듯 한다.’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다음에 例示한 것과 같은 部類의 것들은 비교적 의미전달의 기능적 비유가 살아나는 것이므로 직유법의 俗談으로 분류했는데, 다른 수사법의 俗談들과 견주어 볼 때 표현 기법으로서의 묘미는 뒤지고 있다.

<例 示>

- 두린놈 헛간 들러먹듯(한다).
(미친놈 날간 휩쓸어먹듯(한다).)
- 틀 타먹은 하르방 허대듯(한다)
(산딸나무 열매 따먹은 할아버지 수다떨듯(한다).)
- 늘근 놈이 절문 첩하민 불 본 나비 날뛰듯한다.
(늙은 놈이 젊은 첩하면 불 본 나비 날뛰듯한다.)
- 도둑놈광 새뭇은 무끄민 닳나.
(도둑놈과 땃뭇은 묶으면 닳다.)
- 흐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빈 다심어멍 죽은 데 눈물 닳나.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비는 계모 죽은 데 눈물 닳다.)

(8) 設疑法(12편)

設疑法은 어떤 단안이나 결론을 의문의 형식을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誘導하는 수사법이다. 그러나 終結辭에는 의문형어미가 붙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本島의 方言에 나타나는 의문형어미인 ‘~카’와 같은 종결어미가 있어 특이한 언어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8) 金宗澤,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34·35合併號, 국어국문학회, 1967, p. 64.
張德順의,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p. 188.

<例 示>

- 개가 똥을 좃주.
(개가 똥을 참을까.)
- 나 한 물은 콩 말덴 흐라.
(나이 많은 말은 콩 마다할까.)
- 담 터진 밧디 모쉬 안 들라.
(담 허무러진 밧에 우마 안 들어갈까.)
- 이녀 집 식께 모르멍, 늬이 집 식께 알카.
(자기 집 제사 모르면서, 남의 집 제사 알까.)
- 느 집 재짜부리 아니민 나 집 축담 무너지카.
(네 집 재짜부리 아니면 내 집 담장이 무너질까.)

(9) 逆說法(8편)

逆說法은 얼핏보면 사리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머금고 있는 것으로 反語的 표현인 아이러니를 함유하고 있는 수사법이다. 어찌면 풍유법의 범주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풍유와 다른 점은 의도적으로 뒤집어 말하는 모순된 듯한 표현기법을 취하고 있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수필의 형식을 ‘無形式의 形式’라던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의 詩句가 逆說과 아이러니인 것처럼 俗談도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선인들의 생활감정을 滑稽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例 示>

- 여자로 나느니 썬로 나주.
(여자로 낳는 것보다 소로 낳는 것이 낫다.)
- 사위 잘흐민 집안 망흐다.
(사위 잘 하면 집안 망한다.)
- 아인 솔아불곡 붓만 난다.
(아이는 불살라버리고 태반만 낳는다.)
- 제주산은 악산이난 악흐 사름 잘 된다.
(제주산은 악산이니 악한 사람 잘 된다.)
- 늬이 간장 썬긴 얼굴 늬은 들에 썬 간절귀여.
(남의 간장 썬인 얼굴 늬은 들에 썬 개똥참외다.)

(10) 漸層法(5 편)

漸層法은 강조하여 표현하고 싶은 사실을 층계를 올라가듯 점진적으로 의미를 고조 또는 심화시켜 나가는 수사법이다. 따라서 부분이나 개체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국면으로 확대되어 갈수록 태산적인 심도가 더해짐으로써 錦上添花나 雪上加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기법의 俗談은 例示한 것 정도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은 다른 수사적 기교보다 좀더 사려 깊은 追步的 類推技能이 요망되기 때문으로 본다.

〈例 示〉

- 좁음 도둑으로 집안 망한다.
(좁음 도둑으로 집안 망한다.)
- 쇠똥에 엮어지면, 개똥에 코 댈다.
(소똥에 얽어지면, 개똥에 코 댈다.)
- 집에 송시 들젠 흥민 튼은 독도 고기약항복 기시린 듯이 득름을 돈곡 배긴 개가 옹공 공한다.
(집에 흥사가 생길려면 튼은 닭이 꼬끼요하고 그시린 돼지가 뛰어나고 벗긴 개가 옹공 공한다.)
- 갓서른에 9든난 영감을 만나난 두 불 시 불 물 던 밥도 씹어달렌 앙얼한다.
(갓서른에 여든 살 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 번 물을 던 밥도 씹어달라고 앙탈한다.)
- 돌 멍청 담이나 담곡, 낭 멍청 불이나 습곡, 쇠 멍청 잡아나 먹나, 사름 멍청 어디 쓰리.
(돌 멍청이는 담이나 쌓고, 나무 멍청이는 불이나 때고, 소 멍청이는 잡아나 먹지만, 사람 멍청이 어디에 쓸까.)

2. 律 格

한국문학사에서 詩歌의 律格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이 音數律, 音步律, 強弱律, 高低律, 長短律, 押韻律 등이 그것인데, 이들 중 어느 것도 한국시가의 基層的 운율구조를 확고히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율격론은 일면적 고찰에 지나지 않고 있고 外來律格의 불합리한 導用에 불과함으로써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芮昌海의 「韓國詩歌 韻律의 研究에 대한 通時的 考察」(韓國學報 11집, 1978)에서 先學들의 논고를 시대별로 연구사를 검토하여 제시한 결론이다. 과연 이 비판적 재조

명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 율격론에 대한 盲信도 삼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受容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俗談學에서 고찰해 온 율격을 살펴보면, 音數律, 音步律, 押韻律이 그 전부이다. 李殷相⁹⁾과 金思燁¹⁰⁾은 음수율을 다뤘고, 沈在箕¹¹⁾와 金善豐¹²⁾은 음수율, 음보율, 압운율을 총괄 적용시켜 논의했다. 문제는 漢詩의 絕句의 운율인 압운율을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이다. 韓國俗談을 漢譯할 때는 漢詩의 압운법을 적용시켰지만 실제 우리 俗談에는 압운법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도 韻文이 지니고 있는 소리의 반복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편의상 압운율을 적용시켰던 것이다. 어쨌든 俗談은 그 표현이 古詩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시가의 율격과 同一脈絡에서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국시가의 율격구명 중 압운법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한 “韓國詩歌에서 押韻法의 개념에 맞고 또 押韻으로서의 機能을 보이는 押韻形態가 없다.”¹³⁾는 것도 윤염해 볼 때 압운율의 적용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金思燁¹⁴⁾도 한국속담에는 압운이 없다고 했듯이 韓國俗談에 압운율을 적용하는 것은 便法일 수밖에 없다. 대구나 대조로 구성된 俗談들 중에는 同一語素나 助詞, 語尾가 반복중첩됨으로써 口演的 효과와 快味를 제공해 주고는 있지만 반복과 중첩에서 오는 쾌미의 율동적 운율을 압운법으로 끌어들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시가나 俗談에는 압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음수율과 음보율만을 살펴 나가겠다.

(1) 音數律

音數律의 연구¹⁵⁾는 한국시가의 운율적 基層構造를 구명하려는 의도에서 時調를 대상으로 하여 1920년대부터 1950년도 초반까지 그 독무대를 이뤘다. 俗談學에 있어서도 시가의 운율형태와 같은 맥락에서 음수율이 논의되었는데, 李殷相¹⁶⁾이 4·4調를 조선가요의 재래식 기본형으로 보고 이것을 그대로 俗談의 기본율격으로 도입시켜 3·4調, 4·3調, 4·5調, 5·4

9)

10) } 註1) 해당자 문헌 참조.

11)

12)

13) 芮昌海, ‘韓國詩歌 韻律研究에 대한 通時的 考察’ 『韓國學報』 11輯, 1978, p. 177에서 金大幸의 <押韻論>을 인용하여 押韻法 不在를 주장하고있다.

14) 前掲書, p. 21, 23.

15) 梁柱東, ‘詩와 韻律’ 『金星』 第三號, 1924.

李光洙, ‘時調와 自然律’ 『東亞日報』, 1928, 11. 2~7.

李秉岐, ‘律格과 時調’ 『東亞日報』, 1928, 11. 28~12. 1

趙潤濟, ‘時調學數考’ 『新興』 第四號, 1930.

16) 前掲書, pp. 236~238.

調, 3·3調, 5·5調 등을 총합하여 4·4調類로 다루고, 그 이외의 음수율의 것은 亂調로 다루었다. 또 金思燁¹⁷⁾도 詩歌型으로서의 聲律을 중심으로 4·4調, 3·3調, 5·5調, 3·3·5調(아리랑調)등으로 구분했고, 金善豐¹⁸⁾ 역시 8음절인 4·4調를 으뜸으로 한 6·5調, 7·5調, 6·6調, 4·3調, 4·5調가 많고 다음으로 3·3調, 3·4調, 5·5調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本島俗談인 경우 10편 이상 同一音數律群으로 묶을 수 있는 것 13개의 部類를 중심으로 그 분포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들 13個部類에 해당하지 않은 음수율의 것은 混調로 처리하여 그 형태도 각양각태이므로 例示에서 제외시켰다.

- ① 5·5조(48편) ② 4·4조(46편)
- ③ 7·5조(37편) ④ 6·6조(29편)
- ⑤ 4·5조(27편) ⑥ 3·4조(25편)
- ⑦ 4·3조(15편) ⑧ 5·4조, 7·7조(각 14편)
- ⑨ 3·5조, 4·6조(각 12편) ⑩ 8·5조, 5·6조(각 10편)

이상의 음수율군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5·5調가 으뜸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전통적 율조로 일컬어지는 4·4와 3·4調가 분포순위 ②⑥이고, 新文學期의 주조를 이뤘던 7·5調나 8·5調가 ③⑩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俗談은 그 나라의 詩歌와 운율적인 맥락을 부분적이거나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에 雜多한 형태로 散在해 있는 각양각태의 음수율들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本島俗談에 어떠한 一定型의 기층음수율을 推定한다거나 또 일일이 음수율을 선별하고 분류한다는 것도 難題가 아닐 수 없다.

< 例 示 >

1) 5·5調(48편)

- 미운놈 보킨 술장시호라.
(미운놈 보려면 술장사하라.)
- 절믄 계와시 막보지 말라.
(젊은 거지 막보지 말라.)
- 나서 화목은 남자가 흥곡, 들어 화목은 여자가 흥다.
(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하고, 들어와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 질이 웃으난 흥질을 견곡, 물이 웃이난 흥물을 먹나.
(길이 없으니 한길을 견고, 물이 없으니 한물을 먹는다.)
- 섯포리왔디 들어난 쉼광, 지집년방에 들어난 늙은 흥번 가나민 주으릇흥다.

17) 前掲書, pp. 20~21.

18) 前掲書, pp. 566~568.

(설편리밭에 들었던 소와 여자방에 들었던 놈은 난번 가고나면 솔깃한다.)

2) 4·4調(46편)

- 도 막은 밭 작재 웃나.
(통로 막힌 밭 시세가 없다.)
- 체 불리는 부재 웃나.
(겨 날려 버리는 부자 없다.)
- 새침때긴 비곡꿀곡, 허우대긴 그렁 죽나.
(새침뚜긴 베고깔고, 허위대는 그러서 죽는다.)
- 놈이 집광 관장살인 케던 밥도 두영 간다.
(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꿇던 밥도 두고 간다.)
- 놈이 간장 세긴 얼굴 넓은 들에 쓴 간절귀.
(남의 간장 썩인 얼굴 넓은 들에 쓴 개똥참외.)

3) 7·5調(37편)

- 질엿 돌도 연분이 이서사 찬다.
(길엿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췌눈이 크텐 해도 이논이 크다.
(소눈이 크다고 하지만 의논이 크다.)
- 눈까진 딸 가지영 사위 골린다.
(눈 상한 딸 가지고 사위 고른다.)
- 내 집 가운 놈이 집 처녀에 멘다.
(내 집 가운은 남의 집 처녀에 달렸다.)
- 도둑놈광 셋뭇은 무끄민 났나.
(도둑놈과 땃뭇은 묶으면 같다.)

4) 6·6調(29편)

- 삼년 가물아도 홀 일 다 못홀다.
(삼년 가물어도 할 일 다 못한다.)
- 초정월 우치민 보재기가 운다.
(초정월 비오면 어부가 운다.)
- 양식 싸지 말앙 벼을 멀리 두라.
(양식 싸지 말고 벼을 멀리 두라.)

- 지가 낸 법률에 지가 메맞인다.
(자기가 내놓은 법률에 자기가 매맞는다.)
- 봄좁은 자왈에 걸어져도 잔다.
(봄잡은 덩불에 걸어져도 잔다.)

5) 4·5調(27편)

- 얼굴 존거 정이지 말라.
(얼굴 예쁜 거 탐내지 말라.)
- 밥 먹음도 일 출림인다.
(밥 먹음도 일 차림이다.)
- 놈 논 것은 쉐도 못 찾나.
(남 놓은 것은 소도 못 찾는다.)
- 입으로만 핍이여 매여.
(입으로만 핍이다 매이다.)
- 유월 물이 그림덴 해도 어멍보단 더 안 그림나.
(유월 물이 그림다고 해도 어머니보다 더 안 그림다.)

6) 3·4調(25편)

- 지름 줄 씨앗 웃나.
(기름 줄 시앗 없다.)
- 막동인 흙세홀다.
(막동이는 어리광부린다.)
- 벤 애길 지드리멍 홀 용실 지드리랴.
(베인 애기를 기다리며 지은 농사를 기다리랴.)
- 득라멘 도새기나, 기시린 도새기나.
(달아멘 돼지나, 그시린 돼지나.)
- 집안에 든 평 놔뵤 밧뵤찡 잡젠 홀다.
(집안에 든 평 노아두고 밧뵤찡 잡으려 한다.)

7) 4·3調(15편)

- 놈이 우로 내 넘나.
(남의 위로 내 건넨다.)
- 밥도 쉬면 못 먹나.
(밥도 쉬면 못 먹는다.)

- 선술 할망 배분다.
(선술 할머니 배 불른다.)
- 좁쌀만이 아꼈당, 담돌만이 해롭나.
(좁쌀만큼 아꼈다가, 돌맹이만큼 해롭다.)
- 건지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건더기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8) 5·4調(14편)

- 볍재기 사울 일긴 안다.
(어부 사흘 날씨는 안다.)
- 딸은 어멍 피 물영 난다.
(딸은 어머니 피 물고 난다.)
- 김이 보말도 집은 싯나.
(게와 고등도 집은 있다.)
- 밧이 조와사 씨가 산다.
(밭이 좋아야 씨가 잘 자란다.)
- 독도 지 압씩 그너먹나.
(닭도 제 앞씩 굶어 먹는다.)

7·7調(14편)

- 벤 짐은 갈랑 저도 빙은 못 갈랑 진다.
(무거운 짐은 나뉘서 저도 병(病)은 못 나뉘 진다.)
- 쟈 몰 성안 감시민, 뜯 몰 도그네¹⁹⁾ 간다.
(빠른 말 성내 가고 있으면, 느린 말도 도그네 간다.)
- 삼스월에 난 애기, 저녁에 인사훈다.
(삼사월에 낳은 애기 저녁에 인사한다.)
- 정의서²⁰⁾ 죽쭈던 솥 모간²¹⁾ 와도 죽쭈다.
(정의서 죽쭈던 솥 모간 와도 죽쭈다.)
- 서방 못 들령 울곡, 각씨 못 들령 울곡.
(남편 잘못 만나서 울고, 아내 잘못 만나서 울고.)

19) 濟州市 外都洞의 俗稱

20) 南濟州郡 東部地域의 총칭

21) 濟州市를 포함한 北濟州郡 일대

9) 3·5調(12편)

- 막둥이 부모 직한다.
(막둥이 부모 지킨다.)
- 궂당은 옷 우잇 받름.
(친족은 옷 위의 바람.)
- 즈식은 키울 때 자미.
(자식은 키울 때 재미.)
- 눈 낭에 9름 안 언다.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시렌 흐 췌는 안 시곡, 마개가 더 몬저 신다.
(시라고 한 초는 안 시고, 마개가 더 먼저 신다.)

4·6調(12편)

- 검은 독도 흰 독쌌기 난다.
(검은 닭도 흰 달걀 낳는다.)
- 삼스월엔 물가죽도 버쩍.
(삼사월에는 말가죽도 뻗뻗.)
- 동서간에 산 췌다리 빈다.
(동서간에 산 소다리 벤다.)
- 웨바농코 툃다지기 쉽다.
(외바늘귀 쪼개지기 쉽다.)
- 딱린 놈은 예염으로 가곡, 맞인 놈은 가운데로 간다.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

10) 8·5調(10편)

- 열두 매에 묵찌 전엔 촌말 못훈다.
(열두 마디에 묶기 전에는 참말 못훈다.)
- 손엿물은 개안티도 아니 뿌린다.
(손엿물은 개한테도 아니 뿌린다.)
- 흠어멍 훈다니 말라 씨로 안 난다.
(흠어미 야단 말라 씨로 안 낳는다.)
- 동지 넘으면 푸새도 새 믿음훈다.
(동지 넘으면 푸성귀도 새 마음훈다.)

- 헛간에 가도 흘 말은 허여사 훈다.
(헛간에 가도 할 말은 하여야 한다.)

5·6調(10편)

- 고운 사름은 맥을 써도 곱나.
(고운 사람은 망태를 써도 곱다.)
- 준 원순 싯곡, 안 준 원순 웃나.
(준 원수는 있고 안 준 원수는 없다.)
- 흥영 다르곡 안흥영 다르다.
(해서 다르고 안해서 다르다.)
- 욱십이 썸민 도독이 반이여.
(욕십이 세면 도독이 반이다.)
- 큰일 처난 집 저녁7십 싯곡, 큰곳해난 집 저녁7십 웃나.
(큰일 치뤘던 집 저녁감 있고, 큰곳했던 집 저녁감 없다.)

(2) 音步律

音步律은 195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음수율의 미흡성을 보완시킴으로써 한국시가의 울격구조의 해결을 進一步시켰다.²²⁾

俗談에서 음보율의 적용은 그 음보설정의 단위가 때로는 詩歌와 달리 더 확대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俗談의 음보구분 곧 단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보수에 增減要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語節 중심의 문법단위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언어의 유동적 호흡에 따르느냐이다. 시가에서는 唱이나 詠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2음절 내지 5음절 내외를 1음보로 하는 문법단위인 어절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俗談인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詩歌에서 4음보일 수 있는 것이 俗談에서는 2음보나 3음보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논거로는 “俚諺이란 다른 文學과 달라 直接的으로 民衆의 日常生活에 使用되는 것이며, 書冊에 記錄해 둔다는 것은 第二 第三義的인 問題요 第一義로 보아야 할 것은 直接 口으로 口語에 境遇에 따라 適當히 使用하는 것이다.”²³⁾라고 했던 것도 話用論의 發話현상을 증시한 것이다. 즉 俗談은 기록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대화현장에서 言衆이 활용하는 언어습관과의 密着化가 그 본연인 만큼 음보율의 을 생각하게 된다.

22) 鄭炳豆, '古詩歌 韻律論 序說' 崔鉉培先生 選甲紀念論文集, 1954.

李能雨, '學數考 代案', 서울大學校 論文集, 1958.

23) 李殷相, 前揭書, 註2) 참조

현재까지 한국속담에서 거론된 음보율을 더듬어 보면 詩歌의 운율형태와 같은 맥락에서 음보율을 적용했는데, 沈在箕²⁴⁾는 외형구조상 운율적 조화를 위해 전통적 시가의 기본율격인 4음절길이(4 mora)를 1음보로 하는 2음보 및 4음보를 율격기교로 다루었고, 金善豐²⁵⁾은 음보율의 구조를 左右對稱(symmetry)을 유지하려는 언어생리 현상으로서의 균제된 형식(balanced form)에서 벗어나지 않은 律感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여 2음보가 그 중심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本島俗談을 정리해 보면, 때로는 시가의 음보설정 단위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적게는 1음보에서부터 많게는 17음보에 이르고 있다. 그 분포는 4음보가 550편 중 35%인 192편으로 수위이고 다음에 2음보(160편), 3음보(138편), 5음보(32편), 6음보(26편)……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韓國詩歌에서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3음보 중심에서 4음보의 偶數系 수사기교가 등장했다²⁶⁾는 점과의 연관성이다. 韓國俗談의 등장이 어느 때부터라는 고증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그 활용되던 시대 또한 묘연하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전하고 있는 俗談들은 인간상호간의 활발한 접촉과 유대가 강화됐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기반으로 하여 이조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新生·成長·消滅의 과정을 되풀이 하여 왔다고 推定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本島俗談에 4음보, 2음보, 3음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古詩歌의 음보율과 무관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²⁷⁾ 더구나 고시에서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4음보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은 本島俗談에서 4음보가 많다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俗談 역시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이조시대로 이르는 동안 폭넓게 전파됐던 餘勢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例示는 1음보에서 17음보의 俗談 중 20편 이상을 同一音步群으로 묶은 순위별 6個部類의 음보만을 그 음보단위로 띄어 쓴 것이다.

1) 4音步(192편)

- 나치 窶인애기 질루기도 어렵나.
(날기 窶은 애기 길우기도 어렵다.)
- 산때 안문빛 죽영가도 몰아사훈다.
(살았을 때 안 淺은 빛 죽고 가도 淺아야 한다.)

24) 前掲書, 註1)참조

25) 前掲書, 註1)참조

26) 鄭炳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4, p. 34.

27) 趙東一, 「시조의 율격과 변형규칙」 「국어국문학」 제18집, 영남대학교, 1978, p. 67에 '2음보와 3음보라는 율격의 기본형은 우리말의 특성과 우리 미의식에 따른 선택 때문에 변하지 않고 내려왔고……'

- 웨조케 케느니 마농밧디 점질메라.
(외조카 사랑하느니 마늘밭에 풀메라.)
- 송년에 밧풀젠말앙 입흐나 덜래라.
(홍년에 밧 팔려 말고 입 하나 줄여라.)
- 소나이 잘못만나민 죽삼시 메삼시.
(남편 잘못 만나면 죽 세 끼니 매 세 끼니.)

2) 2 音步(160편)

- 씨앗새에 곤말웃나.
(시앗 사이에 고운 말 없다.)
- 준쇄 포리겐다.
(준 소 파리 꺾는다.)
- 돌당 탈타먹기.
(뛰어가다 딸기 따먹기.)
- 짐진놈이 팡²⁸⁾을춧주.
(짐진 놈이 팡을 찾는다.)
- 비온날 웨장제.
(비 온 날 외상제.)

3) 3 音步(138편)

- 줍녀애긴 일뤼만에 것맥인다.
(해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 동지넘으민 푸새도 새모음훈다.
(동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한다.)
- 몰테우리보다 사름테우리가 더어렵나.
(말 돌보는 것보다 사람 돌보는 것이 더 어렵다.)
- 멩지못은 육춘까지 뚜신다.
(명주옷은 육춘까지 따뜻하다.)
- 퀴어나난 도새긴 또퀴어난다.
(튀어났던 돼지는 또 튀어난다.)

28)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때 대가 되게끔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놓은 것.

4) 5 番步(32편)

- 놨이첩광 소낭계 부름은 소린나도 사를메웃다.
(남의 첩과 소나무에 바람은 소리는 나지만 보잘 것 없다.)
- 비바리 늘거가민 고래착지영 산드레 올른다.
(처녀 늙어가면 멧돌짝 지고 산으로 오른다.)
- 기시린 도새기가 두라멘 도새기 타령훈다.
(그시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 울르는 영장에 가지말앙 지개송장에 가라.
(요라한 영장에 가지말고 지개송장에 가라.)
- 가마귀새끼 하나민 구물꼭 시계민 물한다.
(가마귀새끼 하나면 가물고 세 개면 물 많다.)

6) 6 番步(26편)

- 산에노는 가나귀도 석돌여를 지나민 부모공을 가른다.
(산에서 노는 가마귀도 석 달 열흘 지나면 부모의 공을 갚는다.)
- 어린작씨 달래젠후민 두리중치 사슬돈담앙 생글생글후멍 달렌다.
(어린 작씨 달래려 하면 주머니에 동전 담고 생글생글 흔들면서 달렌다.)
- 귀신은 본을풀민 희락화락, 생신은 본을풀민 칼광불이여.
(귀신은 근본을 풀면 희락화락, 사람은 근본을 풀면 칼과 불이다.)
- 원아방 낭개는딘 가지말곡, 다심아방 켜기씨는딘 투다아지라.
(생부 나무 쪼개는 데는 가지 말고, 계부 고기 썬는 데는 지켜 앓아라.)
- 노허끈 하르방은 아장울곡, 실허끈 할망은 아장푼다.
(노 형크러뜨린 할아버지는 앓아서 울고, 실 형크러뜨린 할머니는 앓아서 푼다.)

3. 滑稽

滑稽의 사전적 의미는 익살로서 남을 우끼려고 일부러 우습게 하는 말이나 짓을 일컫는다. 그래서 평소에 譏弄과 유모어를 잘하는 사람은 익살꾼(滑稽家)으로 통한다. 그만큼 골계는 快味百出의 웃음의 도가니로서 그에 수반된 諧謔과 諷刺는 문학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골계를 논할 때 그 저 웃음을 제공하는 익살감각으로만 처리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간심리를 자극하는 복합요인이 介在되는 다양한 논거를 형성시키고 있다. 즉 골계는 崇高와 상반된 위치에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卑小化시켜 마치 작가가 小人口에 간 가리바와 같은 조건 속에서 내려

다 본 하잘 것 없는 현실이 한덩어리의 웃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⁹⁾

그러므로 문학에서의 골계는 인간과 사회를 통찰하여 인간의 惡德과 僞善, 그리고 생활 속의 모순과 불합리를 드러내는 비판정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상에 의하여 誘發되는 웃음의 양상에 따라 때로는 諷刺로 나타나고 諧謔으로도 나타나는 속성을 지녔다³⁰⁾는 점을 상기해 볼 때, 俗談의 골계성도 다양한 인간생활에서 빚어진 生活樣態가 口頭表出된 口碑文學이기 때문에 주관적 골계에 따른 諧謔·諷刺·아이러니·위트가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 형태가 斷片的 短型이지만 선인들의 슬기와 운치가 골계작용을 통하여 生活訓으로 살아남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滑稽美 즉 諷刺·諧謔·아이러니·위트가 어떻게 俗談에 표현돼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는데, 이들은 자기 독자적 특성외에도 상호교류의 同質性을 갖고 있어 그 選別上 혼선의 愚를 배제할 수 없는 허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풍자와 아이러니는 앞의 修辭에서 諷諭法과 逆說法으로 다뤘기 때문에 중복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수사적 표현기법으로서의 풍유와 골계적 표현으로서의 풍자는 그 성격이 일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再論이 불가피해 진다. 골계에서 해학은 그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풍자와 별개의 것인데 반하여 수사법에서는 해학법이란 없으며 오직 풍유법 속에 해학과 풍자가 雙生兒로 잉태되고 있을 뿐이다.

아이러니인 경우는 역설과 별개의 범주로 분리시켜야 이론적으로 옳지만, 俗談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같은 골계의 범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데서 재론이 불가피하므로 修辭에서 역설법에 해당하는 것들도 골계작용에 의한 아이러니로 함유시켰다.

1) 諷刺

諷刺는 눈물 없이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서 자기부정을 포함하지 않은 주관적 골계인 동시에 웃음을 부정하고 있는 대상과 자기를 絶緣시켜 놓기 때문에 대상을 골계화하는 표현은 언제나 直說의으로 嘲笑하고 卑下함으로써 공격적이다.³¹⁾ 또한 풍자는 쏘는 것으로서 겨울철의 찬 바람처럼 대상의 감정을 해치며 불쾌하게 하는 동시에 第三者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³²⁾

俗談에 있어서도 이러한 풍자의 속성은 緩急銳鈍은 있을지언정 그대로 적용된다. 더구나 풍자성의 강한 속담일수록 장황하게 늘어놓는 訥辯이나 贅辭보다도 훨씬 인상 깊게 衷曲을 울림으로써 속담의 묘미를 돋보이게 한다.

29) 李御寧, '諧謔의 美的 範疇' 「思想界」 第64號, 1958, p. 287.

30) 趙健相, '韓國現代滑稽小說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p. 2.

31) 李御寧, 前揭書, p. 292.

32) 林語堂, '東西洋의 諧謔' 「東西文學의 諧謔」, 주세펜클럽 한국본부, 1970, p. 225.

本島俗談에 있어서 풍자는 수사법에서 보여준 많은 양의 풍자가 전부 웃음을 수반한 주관적 골계일 수는 없으므로 양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성격상 이론적으로 해학과 풍자는 구분되지만 실제 俗談을 놓고 보면 鹿皮曰字처럼 어느 것은 풍자이고 어느 것은 해학이라고 명료한 판단이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俗談의 產出 바탕은 실생활의 경험과 直觀을 통해서 濾過된 된 眞과 僞, 實과 虛의 對比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생활 그 자체가 胎盤인 것이다. 쪼들인 현실 특히 生計維持를 위해서는 불우한 환경을 무릅쓰고 생활하다가 보면 버려질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툼·욕심·질투·어리석음…… 등 無知無覺에서 오는 과오와 갈등이 뒤따랐다. 이들 과오와 갈등이 빚은 결과는 생활의 거울인 교훈을 안겨줌으로써 자각의식과 비판의식을 낳게 했고, 마침내는 우롱할 수 있는 골계미도 점진적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直說的 야유도 있을 수 있지만, 꼬집되 완곡하게 비웃는 빌미도 터득하여 세상사를 譏弄할 수 있는 話法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俗談에서의 諷刺性은 강한 야유를 동반하면서 教化性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活用論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교화가 직접적인 데 비해 풍자는 우회적이며 간접적이라³³⁾는 論旨를 결부시켜 볼 때, 本島俗談의 풍자인 경우 비수처럼 날카롭게 찌르거나 험상궂은 야유라기보다는 생활의 지혜와 守分을 일깨우는 골계적 箴言의 구실을 해주고 있다.

< 例 示 >

- 공꺼엔 흐민 코도 벌경 눈도 벌경.
(공짜라고 하면 코도 빨경고 눈도 빨경다.)
- 기시린 도새기 도라멘 도새기 타령홀다.
(그시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 꼭 걷으래 간 놈이 정당벌립³⁴⁾ 망 돌른다.
(척 걷으러 간 놈이 정당벌립 데 뛰는다.)
- 홀아방은 왜문에 왜돌쳐귀, 홀어멍은 청동화리가 아홉.
(홀아비는 외문에 외돌쳐귀, 홀어미는 청동화로가 아홉.)
- 여잔 동산드레 돌아아장 오줌싸도 치매각 젖는 줄 몰른다.
(여자는 동산으로 돌아앉아서 소피해도 치마자락 젖는 줄 몰른다.)

2) 諧 諷

諧諷이란 어느 개인의 그가 소속된 사회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이거나 弛緩된 긴장에

33) 沈在箕, 前掲書, pp. 232~233.

34) 땡땡이 덩굴로 뛰어서 만든 병거지.

봉착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題材는 정치·경제·문화·종교·습관 등 광범한 데서 찾는 것이다.³⁵⁾ 또한 해학은 자기자신의 弱點을 발견하여 자기를 웃는 것이므로 언제나 부정된 현실 속에서 자기가 있는 것이며,³⁶⁾ 동료 인간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그 약점, 실수, 부족을 같이 즐겁게 시인하는 共感的인 태도이다.³⁷⁾

이렇듯 해학은 관조적인 여유를 갖고 대상을 익살맞은 기질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데서 諷刺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면서도 막상 選別하려고 하면 구분이 모호해 진다. 그것은 小說처럼 사건의 전개와 登場人物과의 관계가 작가의 의도적 구성에 의해서 作品化됨으로써 그 작품에 드러난 인상과 紐앙스의 톤이 그대로 독자에게 구체적 狀況意識으로 感知되는 과정이 俗談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저 斷片으로 된 단순한 암시나 비평적 形式語에 그치고 있어 골계작용에 입각한 풍자와 해학의 식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대로 本島俗談에 드러난 해학상을 추출해 보면 순박한 선인들의 土俗的 氣質과 言行的 약점을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출하고 있다. 차원 높은 내면의식의 촉구가 아닌, 處方과 實利에 밀착된 익살스런 戲話의 한 토막인 것이다. 이를테면 <비바리 늘거가민 7 래착 지영 산드래 올른다. (쳐너 늙어가면 매돌짝 지고 산으로 오른다.)>를 놓고 볼 때, 분명 비정상적인 老處女의 행동거지에 대한 비방이요 야유이다. 그런데도 이 비방과 야유는 폐부를 찌르는 자극적인 풍자가 아니라, 婚期를 놓친 노처녀의 官能的 생태를 골계미가 넘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林語堂³⁸⁾의 말대로 우리 모두를 즐겁고 아늑한 友誼에 찬분위기 속에 감싸주는 하늘의 慈養과도 같다는 해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例 示>

- 부지땡인 데어불기만 흥곡 얻어먹진 못한다.
(부지깽이는 데어버리기만 하고 얻어먹지는 못한다.)
- 못 먹나 못 먹나 흥명 거죽까지 다 먹나.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서 껌질까지 다 먹는다.)
- 니 아픈 부름씨랑 흥곡, 눈 아픈 부름씨랑 말라.
(이 아픈 심부름은 하고, 눈 아픈 심부름은 말라.)
- 통대 상툽이에 꼬자딩 사을 좇나.
(담배대 상투에 꼽아두고 사흘 찾는다.)
- 화투장광 X은 돈지를수록 커진다.
(화투장과 X은 만질수록 커진다.)

35) 鄭炳昱.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p. 356.

36) 李御寧. 前掲書, p. 292.

37) 李商燮. 「文學批評用語辭典」, 民音社, 1976, p. 290.

38) 註32) 前掲書,

3) 위 트

滑稽로서의 풍자와 해학이 그렇듯이 해학과 위트(機智)역시 상호대비가 불가피하다. 해학이 성격적이고 지질적인 데 비하여, 위트는 지적이며 서로 다른 사물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類似點을 찾아내고, 그것을 警句나 格言같은 압축되고 정리된 말로 능숙히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해학에 비하여 빠르고, 날카롭고, 주관적이고, 기술적인 재치가 넘치는 기발한 언어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⁹⁾ 이 위트의 속성 즉 機智는 언어를 무기로 하여 敵對者를 嘲笑하는 데 그 기원을 두고 紳士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⁴⁰⁾ 위트는 기발한 언어적 표현으로서 才談은 물론 疎隔效果를 제공하는 話法이며 話術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俗談은 위트와의 밀착도가 어느 골계미보다도 가중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俗談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음미해보면 事理에 적절한 재치덩어리의 名聲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俗談 전부가 위트일 수 없는 것은 참을 말할 뿐이지 驚異感을 불러일으키는 快味의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위트라는 것은 頭腦回轉에 의한 기특한 표현력의 산물임을 입증해 주는 동시에 상식을 뛰어넘는 發想이 없이는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本島俗談에서의 위트는 正常의 것을 非正常의 것으로 비정상 of 正상의 것으로 표출함으로써 人間事와 자기변호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例로는 <보름은 눈 트꼭, 보름은 눈 어둡나. (보름은 눈 뜨고, 보름은 눈 어둡다.)>가 그것인데, 이 俗談은 文盲인 자신을 호도하는 일종의 詭辯이고 紳士이다. 糊口策의 急務인 당시의 현실성에 입각해 보면 일반 庶民으로서의 文盲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目不識丁은 언어적 인간 (Homo loquens)으로서의 非正常이다. 그러니 글눈이 어두움을 교묘히 변명하려는 상식을 넘어선 발상이 아닐 수 없다.

<例 示>

- 글도 초면 나도 초면.
(글도 初面 나도 初面.)
- 사위 국 하영 먹으면 가시어멍 눈 멜라진다.
(사위 국 많이 먹으면 장도 눈 망가진다.)
- 가냐귀도 내 상제, 소로기도 내 상제.
(가마귀도 내 상제, 솔개도 내 상제.)
- 여잔 익은 음식.
(여자는 익은 음식).

39) 李商燮. 前揭書, pp. 290~291.

40) 李御寧. 前揭書, pp. 294~295.

- 흐룻굿 보젠 코 까끈다.
(하룻굿 보려고 코를 깎는다.)

4) 아이러니

俗談에서의 아이러니는 修辭의 逆說法과 同軌에 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은 아이러니와 역설이 같은 것이므로 異論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현대시에서 아이러니는 표면으로는 그럴사 한 표현은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 보이는, 外面의 虛構性과 內面的 眞實性을 동시에 표출하는 것이고, 역설은 표면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合理性을 지니고 있는, 兩者의 相反性을 결합시키는 표현법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든 모순과 합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이고 역설이므로 俗談에서는 현대시에서처럼 形象化되어 있지 못하고 오직 斷片的 短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구별이 까다롭다. 그래서 아이러니와 역설은 未分化의 상태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

앞의 修辭에서 언급한 역설은 선인들의 생활상을 골계적으로 드러냈다고 변죽만 울렸지만 좀더 구체화하면 아이러니와 역설의 실상은 鄉土的 氣質로 볼 수 있는 自嘲나 自歎속에서 체념과 항거, 그리고 자기극복의 處世觀으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

<例 示>

- 고운년 잡아들이렌 흐난 술친년 잡아들인다.
(고운 여자 잡아들이라고 하니 살찐 여자 잡아들인다.)
- 행실 배우렌 흐난 홀어멍칩 강생일 뜨린다.
(행실 배우라고 하니 과부집 강아지를 때린다.)
- 물명흔 주손 조상 직힌다.
(미련한 자손이 조상 지킨다.)
- 생이다리 하나로 백놈 잔치해도 다리 하나 남나.
(새다리 하나로 백 놈 잔치하여도 다리 하나 남는다.)
- 팔자가 썩민 식전에 씨어멍이 아은아웁.
(팔자가 사나우면 식전에 시어머니가 아흔아홉.)

III. 結

韓國俗談學에서 표현과 형태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표현을 형태에 관련시켜 그 形態構成素의 일환으로 다루고 말았다. 본고는 표현과 형태는 별개의 獨自性을 지닌 것으로 보고, 本島俗談 550편을 대상으로 修辭, 律格, 滑稽 등의 문학적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

1) 修辭: 모두 10개의 수사법으로 수용시킬 수 있었는데, 경구법이 월등히 많고 다음으로 풍유법, 은유법, 대조법, 대구법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과장법, 직유법, 설의법, 역설법, 점층법은 양적으로 열세에 있다. 문제는 이들 수사법이 양적인 우열이 아니라 俗談의 意趣를 살리기 위한 技法으로서의 詩的 표현의 濃縮美가 곁들여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律格: 俗談의 표현이 시적 표현기법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시가에서 그 적용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는 押韻律를 제외하면 현단계로서는 音數律과 音步律의 적용에 머물러 수박에 없다.

음수율을 보면 10편 이상 동일음수율군으로 묶을 수 있는 13個調가 70%를 웃돌고 있고 나머지는 混調로서 각양각태이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한국시가의 전통적 律調로 여기고 있는 3·4調, 4·4調를 비롯하여 7·5調가 그 분포면에서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이것은 俗談과 詩歌와의 연관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음수율의 파악을 통해 俗談의 율격적인 典型性을 규정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음보율에서는 詩歌의 음보단위가 어절중심의 문법단위가 되고 있지만, 俗談은 話用論에 따른 口傳的 呼吸이 중시되므로 그 언어의 율동적 흐름에 의한 음보율의 설정도 불가피하다. 짧게는 1음보에서부터 17음보의 多音步律의 것도 있는데,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4음보가 수위이고, 2음보 3음보가 그 다음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시가에서 3음보가 주축을 이뤘던 것이 고려시대로 접어들어서는 4음보의 偶數系로 변모해 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俗談도 삼국시대보다는 고려시대나 이조시대가 훨씬 新生·成長·消滅의 과정을 많이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3) 滑稽: 주관적 골계인 풍자, 해학, 위트, 아이러니가 적용됨으로써 俗談이 문학적 표현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諷刺는 일반 문학작품에서 보여주는 짜릿하고 후미진 자극은 덜하지만 비교적 완곡한 희롱으로 생활의 지혜와 분수를 일깨워 주고 있고, 諧謔은 투박한 鄉土의 기질을 바탕으로 언행의 약점을 익살스럽게 꼬집고 있다. 아이러니인 경우는 自嘲와 自歎을 통해서 체념과

항거, 자기극복의 처세관을 담고 있으며, 위트는 정상의 것을 비정상의 것으로 비정상의 것을 정상의 것으로 표출함으로써 인간사를 대변하는 窓口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俗談의 표현은 문학적 표현을 닮았다는 데서 비록 斷片的이나마 俗談의 문예성을 再認하지 않을 수 없다.

〈 參 考 文 獻 〉

1. 金思燁. 「俗談論」, 大建出版社, 1953.
2. 金善豐. 「俗談」 「韓國民俗大觀 6」,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3. 金宗澤.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34·35合併號, 국어국문학회 1967.
4. 沈在箕.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冠嶽語文研究」 第7輯, 1982.
5. 芮昌海. 「韓國詩歌 韻律研究에 對한 通時的 考察」 「韓國學報」, 第11輯, 1978.
6. 李基文. 「俗談辭典」, 民衆書館, 1962.
7. 李商燮. 「文學批評用語辭典」, 民音社, 1976.
8. 李御寧. 「諧謔의 美的 範疇」 「思想界」 第64號, 1958.
9. 李殷相. 「俚諺의 意義와 其 形式에 關하여」 「東光」 第10號, 1927.
10. 林語堂. 「東西洋의 諧謔」 「東西文學의 諧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1970.
11. 張德順의.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12. 鄭炳_豆. 「한국고전의 재인식」, 弘盛社, 1979.
13. " .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4.
14. 趙健相. 「韓國現代滑稽小說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15. 趙東一. 「시조 율격과 변형규칙」 「국어국문학」 第18輯, 영남대학교, 1970.
16.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精研社, 1962.

< Abstract >

THE EXPRESSION OF PROVERBS IN CHEJU-DO

by Ko, Jae-hwan

The expression of Korean proverb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forms, but the former was treated as a morpheme concerned with the latter. In this study I treated the expression and form of proverbs separately from each other, and encouraged that the intention of proverbs would be increased by literary expressions as well as forms. Especially, I made a survey of the rhetoric, metrical scheme and comicality of 550 Cheju-do proverbs. The result of survey is as follows :

1. RHETORIC ; all of the proverbs could be accounted for by means of 10 rhetorics. The proverbs were written in the order of epigram, indirect suggestion, metaphor, contrast, parallelism, hyperbole, simile exhortation, paradox and gradation.

2. METRICAL SCHEME ; as the expression of proverbs is similar to that of poetry, Korean songs and lyrics can now accommodate only absolute pitches and musical characters, not rhyme appointed as inappropriate to Korean poetry. 3-4 syllable meter, 4-4 syllable meter, and 7-5 syllable meter, which is considered as traditional rhythm of Korean poetry, cover most of the proverbs in distribution. It means that there exist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roverbs and poetry.

Musical characters are various from 1-notation to 17-notation, and the usage rate appeared in the order of 4-notation, 2-notation, 3-notation and etc. From this, it is estimated that the old poetry had changed into 4-notation while they came down to Korea dynasty.

3. COMICALITY ; the application of a sarcasm, humor, wit, irony called subjective comicality to proverbs makes persons realize that proverbs are a literary expression. Even though the sarcasm is less exciting, it enlightens persons on their social position and wisdom. Humor criticizes comically discordance between persons' words and actions on the basis of crude and local temper. Irony has a philosophy, the arts of life through abandonment, resistance, self-conquest, self-scorn and self-complaint. Wit acts as the gateway to represent human affairs, because normal mentality is expressed through

abnormam mentality and the reverse is applicable.

As shown above, the expression of proverbs is similar to that of literary works. Consequently, even if it is fragmentary, this leads to a renewed appreciation of the literary character of proverbs.